

학회 운영 계획서

한국재무학회 차차기 회장선거에 출마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이동욱입니다. 후보로 추천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무학회 회장으로 일할 수 있는 1 년임기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학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첫째, 앞서 학회를 이끌어주신 전임회장님들이 시작하신 여러 사업들이 연속성을 잃지 않고 꾸준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래 사업들에 집중하겠습니다.

재무연구의 SSCI 등재 및 유지

한국 자본시장을 심도있게 분석한 연구결과들이 최우선으로 게재되는 SSCI 등재 학술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재무연구의 SSCI 등재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등재가 제 회장임기 전에 이루어진다면 등재유지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재무학회의 국제화

한국, 대만, 일본의 재무학회가 공동주최하는 학술대회가 이미 수년 전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다른 국가들의 참여 등을 통해 학회의 국제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차세대 연구자 지원

신진학자와 박사과정생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중단/축소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또 확장하겠습니다. 특히, 학문후속세대가 재무학회를 본인들 연구성과 공유와 소통의 주된 수단이자 터전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신구의 조화와 균형이 있는 학회를 추구하겠습니다.

정책심포지움을 통한 자본시장 논의 선도

재무학회는 매년 정책심포지움을 통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논의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방향과 논점을 제시함으로써 학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연구자로서의 사회적 의무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사업으로서 금융인 윤리의식 제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차기회장이신 김우찬 교수님께서 이미 제안하시고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신 공적활동 윤리코드 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무금융 학자들의 대외활동에 초점을 맞춘 이 사업을 확장하여, 저는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금융인 전체의 윤리의식 제고사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교육자로서의 윤리”, “법률가로서의 윤리”, “언론인으로서의 윤리” 등등 각 전문가 직군들은 자발적인 윤리적 제약을 통해 대외적인 신인도 제고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인으로서의 윤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오히려 몰가치적인 직군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금융인들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선도하겠습니다.

2026 년 9 월

재무학회 차차기회장 후보 이동욱 드림